

브렉시트(Brexit) 이후의 영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

안지영 연구원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 브렉시트(Brexit) 이후 최근 영국 경제동향

● 국내 총생산(GDP)

- 지속되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2018년 사업 투자에 대한 저항으로 계속 작용할 것임. 영국 GDP 성장률은 1.4 % 이하로 유지 될 것으로 예상¹⁾

[표 1] 영국 GDP 증가율

순위	2016 Q4	2017 Q1	2017 Q2	2017 Q3	2017 Q4
GDP 증가율 (전년대비, %)	1.99%	2.01%	1.79%	1.75%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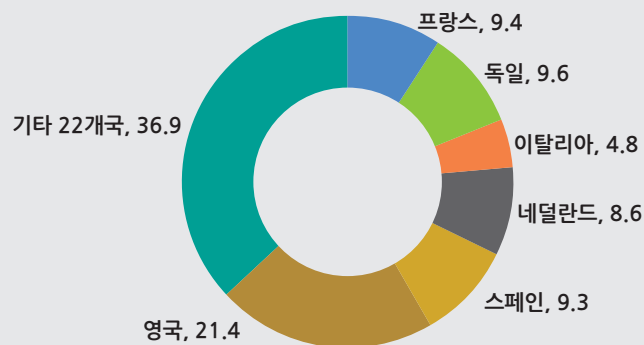
출처 : Bank of England (BOE)

-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가 영국과 EU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원활히 체결한다고 하여도 향후 15년 동안 영국 경제성장률은 5%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영국이 EU와 재협상 시, 유럽경제지역(EEA) 가입에 성공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할 경우, 이 수치는 2% 낮아질 것으로 예상²⁾

● 외국인직접투자(FDI)

- 영국은 브렉시트 이전, EU 회원국 중 FDI를 제일 많이 유치했었고, FDI 유입액 비중이 EU회원국 중 가장 높았음

[그림 1] EU 28개국의 총 투자유입액 중 각 회원국별 비중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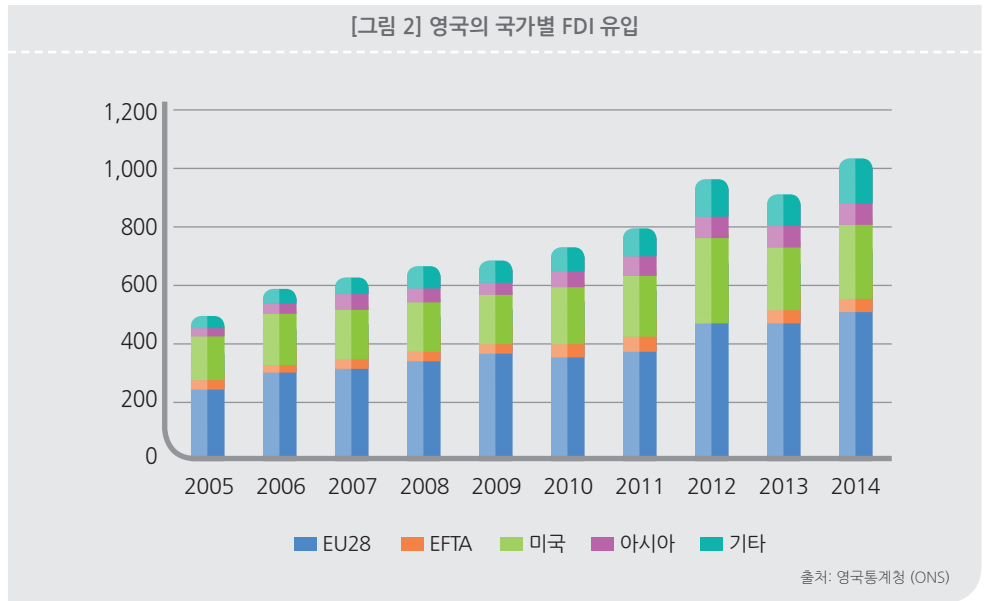


출처: 영국통계청 (ONS)

1) Frost & Sullivan, Global Healthcare Industry Outlook, 2018

2)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2018/01/30/story_n_19110570.html

[그림 2] 영국의 국가별 FDI 유입



- 브렉시트 이후, 영국 텔레그래프지(The Telegraph)는 OECD 통계를 인용, 브렉시트 가결 투표에도 2016년 영국으로 유치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970억 파운드(약 300조원)로 2015년 대비 330억 파운드(약 50조원) 증가했다고 밝힘

● 법인세율

- 영국 정부는 2017/18 예산안 안에 법인세 인하 계획을 포함해 발표하였는데, 해당 계획에 따라 20%였던 법인세율은 2017년 4월부터 19%로 낮아졌으며, 2020년까지 17%로 인하할 방침.³⁾ (독일의 경우 법인세율이 30%에 달함)
- 새로운 규정 중 법인세 감면조건에 적합한 연구개발(R&D) 관련 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음

🏥 브렉시트(Brexit)가 영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

- 영국 제약협회(ABPI, The Association of the British Pharmaceutical Industry)는 ‘브렉시트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 시행을 앞둔 시점에 EU 회원국 유지를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음
- 브렉시트 전, 영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되어 있었을 때는 영국 제약 업체가 신약이나 의료장비 등의 임상시험 및 시판허가를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⁴⁾에서만 승인 받으면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음. 탈퇴 작업이 마무리되면, EU 시장 진입을 위한 EMA와 영국 식품의약품안전청(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⁵⁾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함

3)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ldx=158561>

4)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유럽 의약품청. 유럽 내 의약품을 관리, 감독하고 승인 함.

5) MHRA(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영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영국에서 약의 안정성에 관해 책임지고 있음.

● **첨단신약에 대한 접근권 제약**

- EU를 탈퇴하고 각종 첨단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영국 제약사들은 신약의 허가취득 절차를 자국 내 보건당국과 유럽 보건당국 두 가지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⁶⁾
- 내년 소비 지출 감소세를 감안할 때 영국이 유럽의약품청(EMA)을 탈퇴하면 영국의 의약품 청구서 비용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약국 및 혁신 약품에 대한 접근이 지연 될 예정.

● **임상시험 승인 업무의 이전**

- EMA가 암스테르담으로 이전하면 EMA의 임상시험 승인 업무의 30%를 영국 식품의약품안정청(MHRA)이 대행해온 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하려는 세계 굴지 제약업체들이 영국에서 임상실험을 하지 않게 됨.

● **EU로 부터의 자금 조달 문제**

-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EU의 연구개발 자금을 많이 지원받아왔으나⁷⁾ 브렉시트 이후 유럽투자기금(EIF)에서 신약개발을 포함한 영국과학 분야에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자금 85억 파운드(약 13조 원)도 위태로워짐⁸⁾
- 영국 바이오산업협회(BIA, UK Bio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2005~2015년 사이에 영국 바이오산업은 9억 2천 400만 파운드(약 1조 4천억 원)를 성장을 통해 조달. 제약/바이오업계의 일반 자금조달도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

● **유럽의약품청(EMA)의 새로운 규제**

- 적어도 2,600개 이상의 의약품이 영국에서 제조되며, 대다수가 대륙으로 운송됨. 모든 의약품은 브렉시트 이후 새롭게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하는 EMA(본사는 영국에 있었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MA가 영국의 "마케팅 허가 보유자(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합의가 없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임.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EU로 가는 모든 약은 수출 된 후에 재시험 되어야하며 EU에서 만들어진 제약이 영국으로 유통되는 데에도 새로운 절차를 따라야 함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제약 기업 동향**

● **영국 바이오산업협회(BIA)는 브렉시트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

- 2018년 현재 BIA는 브렉시트 이후 EU 시장과의 분리가 있을 지라도 의약/바이오 분야에서 EU와의 지속적인 교류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밝힘

● **비즈니스 위험요소**

-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생각하는 영국 내 기업 운영 시 위험요소 중 1위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 2위는 영국 내 낮은 수요, 3위는 금리인상 및 영국과 미국의 통화긴축 우려 순으로 나타남

6)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6&nid=202182>

7) 영국 바이오산업협회(BIA), www.bioindustry.org

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 KR20160624171400017.HTML>

●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GlaxoSmithKline)의 동향**

- GSK는 세계 3위인 제약회사로 영국 내 운영 중인 9개 제조공장 중 신규 의약품 개발을 위한 3개 공장의 증설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2억 7500만 파운드(약 4187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로 인해 약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언급함
-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늘려 영국은 낮은 법인세, 유연한 노동시장, 우수한 인재 확보 용이성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투자 환경을 갖고 있으며 특히 역외국으로부터는 EU 단일시장 진입을 위한 관문으로 인식 됨. 브렉시트 직후, 2016년 7월 가디언(the Guardian)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GSK의 전 CEO 앤드류 위티(Andrew Witty)는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으나, 첨단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 입장에서 영국은 숙련된 노동력과 비교적 낮은 법인세 덕분에 여전히 매력적인 사업지”라는 입장을 표명 함.⁹⁾ 앤드류 위티는 더불어 브렉시트로 인한 심각한 비즈니스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함
- 브렉시트에 따른 간접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향후 2~3년간 의약품 재검사, 제조, 마케팅 재허가 등 6884만 파운드(약 1048억 원)의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임을 언급.¹⁰⁾ 브렉시트가 GSK의 의약품, 백신 공급 환자 및 건강 제품을 영국과 EU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EU 국가 내 새로운 생산, 연구시설 건설을 검토

●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동향**

- 아스트라제네카는 세계 8위인 제약회사로 R&D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예정임¹¹⁾
- 아스트라제네카는 브렉시트에 따른 2492만 파운드(약 379억 원)의 잠재적인 관세 부과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함¹²⁾
- 현재 사업 중 일부가 영국에서 유럽으로 이전하게 될 예정임

 **시사점**

- 브렉시트가 전반적인 영국 경제 발전에 제약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그러나, 영국이 법인세율이 낮다는 점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브렉시트 이후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2020년까지 17%)¹³⁾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제약업계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브렉시트에 대한 여파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나 EU 시장과 영국 시장 접근 시 두 시장의 규제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간접비용 증가가 예상
- R&D 부문에서도 유망한 과학자들이 다른 유럽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9)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6/jul/27/gsk-says-britain-still-an-attractive-place-to-invest-Brexit>

10) GSK Annual Report 2017.

11) Frost & Sullivan, Game-changing Strategies of European Pharma Companies. 2017.

1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51421>

13) 미국은 2018년 부터 법인세율 21% 적용, 독일의 경우 법인세율이 30%에 달함

<참고문헌>

1. Frost & Sullivan. Strategic Analysis of Brexit and its Implications to Industries, Economies and Societies. 2016.
2. Frost & Sullivan. UK's National Health Service in the Run Up to Brexit - What to Expect When You're Expecting. 2016.
3. Frost & Sullivan. Game-changing Strategies of European Pharma Companies. 2017.
4. Frost & Sullivan. Global Healthcare Industry Outlook. 2018.
5. KOTRA.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매력적인 FDI 도착지. 2017.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8561>
6. The Guardian. GSK says Britain is still an attractive place to invest. 2016.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6/jul/27/gsk-says-britain-still-an-attractive-place-to-invest-brexit>

저자소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안지영 전화 : 031-628-0027
 email: frida@koreabio.org

BIO ECONOMY BRIEF

발행 | 2018년 4월
발행인 | 유승준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